

갈 곳 잃은 조계사 '반야심경'

사찰 문화 공간 활용 마인드 빈약 드러낸 대표 사례



조만간 조계사에서 철거될 예정인 미술가 이종섭의 '반야심경'.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인근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불교를 알리는 포교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조계사는 불자·비불자의 구분 없이 도심 속에서 불교의 향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조계사에 가면 설치미술 작품 '반야심경'을 볼 수 있다. 경전을 현대예술로 표현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사찰에서 만나는 예술작품인 까닭에 조계사를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반야심경은 작년 10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조계사 경내에 설치됐다. 미술가 이종섭씨가 <반야심경> 260자를 쇠물로 썬내려간 가로 14m, 세로 7m의 대형 조형물이다.

이씨가 2년 여에 걸쳐 제작한 작품으로, 특별한 장소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전시형식이다. 이씨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해 생경스러움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반야심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관심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의 행보에 대해 더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유는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설치조형물인 까닭에 한번

작품을 설치하고 해제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며, 규모도 큰 편이어서 전시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계사에서 철거하면 이전해서 전시할 공간이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야 신세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계사 스님들이 애당초 경내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며 "조계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홍보팀 관계자는 "주지스님이 작품을 철거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계약했던 시간보다 더 연장해 전시를 이어왔고, 당장 작품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고, 단지 땅이 녹는 봄쯤이면 작품을 철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작가는 "12월 초까지 전시 예정이었다. 예상외로 조계사를 찾는 분들에게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계속 전시해오고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전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교 팝 아티스트 김영수씨는 사찰이 문화공간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님들은 사찰 건물 조성 시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찰에 불교조각공원 같은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보는 시각이 닫혀있다. 불교도 이제는 열린 눈과 마음으로 문화를 함께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사찰은 대체로 부지가 넓다.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산사음악회나 문화축전 등을 통해 불교미술제, 현대불교미술 비엔날레 등을 개발해 불교도 알리고, 불교를 토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 시 친환경적인 녹지시설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까지 마련한 것은 현대인들이 환경과 문화적 공간에 점차 관심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조계사 '반야심경' 해제 건은 사찰의 문화공간 활용 마인드가 불교계에 부족함을 반증하는 한 예이다.

교계 한 전문가는 "불교문화는 '옛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불교가 오늘을 사는 대중에게 다가서려면 사찰부터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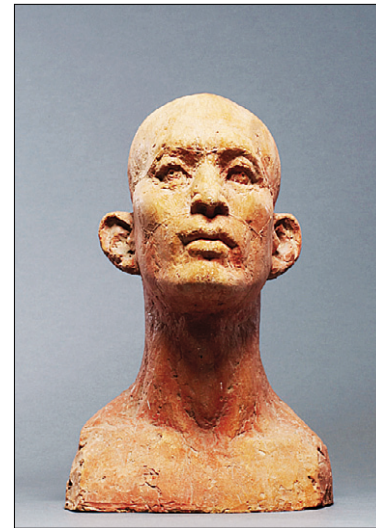
공 사상 투영한 '원형감정' 적용

국립현대미술관 28일까지 '권진규' 전... 졸업작품 첫 공개

한국근대조각의 거장 故 권진규(1922~1973)의 유학시기부터 말년에 이르는 작품들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2월 28일까지 '권진규' 전을 열어 조각 100점, 드로잉 40점, 석고 틀 1점 등 총 1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총 6부로 구성돼 학창시절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세계 전체를 조망한다. 반세기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권진규의 스승인 시미즈 다카시(清水多嘉示, 1897~1981) 작품 12점과 부르델(E.A. Bourdelle, 1861~1929)의 부조작품 5점이 함께 소개돼 권진규 작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故 권진규의 대표적인 '자소상'.

권진규는 1948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전신인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1953년 이과전에서 특대를 받았고,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1959년 귀국했다. 귀국 후 그는 테라코타와 건칠을 주재료로 한 조각 작품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이룩했다. 주제에 있어서는 남녀인물, 동물, 추상 등 다양한 주제를 전개했고, 작품의 영역

은 환조, 부조뿐만 아니라 회화, 드로잉 등도 제작했다.

특히 권진규는 드로잉과 조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많이 다뤘는데, 그는 모델과 작가와의 관계를 '모델+작가=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모델의 내적 세계를 투영해 작품에 담고자 하는 원형감정(原型感情)을 통해 주로 작품작업을 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작품뿐 아니라 그의 삶에도 적용됐다.

권진규의 이런 독특한 원형감정은 공(空) 사상으로, 불이(不二)의 경지를 나타내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70년경에 제작된 작품 '자소상'은 비구상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중첩시켜 무언가를 갈구하는 구도적인 차원의 작품을 표현했다. 자신의 마지막 이력서에 대표작품으로서 '자소상'을 꼽고 있을 만큼 권진규는 예술가로서의 소신을 자소상으로서 펼쳤다.

'권진규'전은 이미 일본 도쿄국립현대미술관과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자료도서관과 함께 기획해 일본에서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과 그 동안 보기 힘들었던 작품들을 통해 권진규의 새로운 면모와 불교적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02)2188-6062

이은정 기자

다향 그윽한 문경에선 축제가...

문경전통차사발축제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 4월 30일~5월 9일

어느덧 봄의 기운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봄과 어울리는 향기로운 차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문경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인 문경전통차사발축제의 주제를 '천년의 숨결 차의 향연'으로 정하고 4월 30일~5월 9일 축제를 연다. 행사는 차사발 국제교류전, 문경전통도자기 명품전, 전국 도예명장 특별전 등 기획·전시행사와 문경 전통발달레 경진대회, 망명이가 불지피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차사발축제에 앞서 7회 전국 차사발 공모대전을 열기로 하고 참가작을 8일부터 5일간 받는다. 전통 장차 가마를 고집해 천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문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차사발 공모대전은 우리 민족의 차사발과 다기를 대상으로 접수하며 출품료는 작품당 3만원이다.

이 밖에 국립국악원은 입춘을 맞아 4일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국악계 인사 500명을 초청해 '신년입춘다회(新年立春茶會)'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무사태평을 빌고 국악이 차 향기처럼 그윽하게 퍼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자리로, 차를 대접하는 '점반다례'와 휘호(揮毫)가 어우러진 '연화다례'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대 앞에서 사군자 중 매화와 입춘대길(立春大吉)을 휘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무대 영상으로 보여줘 입춘을 맞을 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더했다.

이은정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우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까.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연/대명/관속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I (법배의전승계보)	법배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II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수	요일	모집인원
법배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 수료 및 졸업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학점은행제 과정**
 - 고졸이상자, 전년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편 입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해

-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함
-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직법계 품수자격 부여
-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